

전남도, 멈춰선 연탄공장 재가동 이끌어...겨울철 공급 정상화

광주·전남 총 3427가구 여전히 난방용 에너지원 사용

(주)남선, 매주 3일간 일일 약 5만여장 생산...안정 공급

전남도가 겨울철 서민층의 주요 난방 에너지원인 연탄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연탄 생산공장은 ㈜남선, 화광연탄 2곳이다.

광주 송하동에 위치한 ㈜남선은 원료비 상승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비산 먼지 등 환경 민원으로 폐업 전 단계 상태였다.

화광연탄은 화순탄광 인근에 위치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실상 장기 가동 중단 상태다.

광주·전남에는 총 3427가구(광주 760가구·

전남 2667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탄공급 중단이 장기화하면 가장 가까운 전북 전주에 소재한 전주연탄에서 연탄을 수급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연탄 수요량은 300만 장으로 전주에서 수급하면 장당 850-900원이던 연탄 가격에 약 100원의 운송비와 인건비가 추가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부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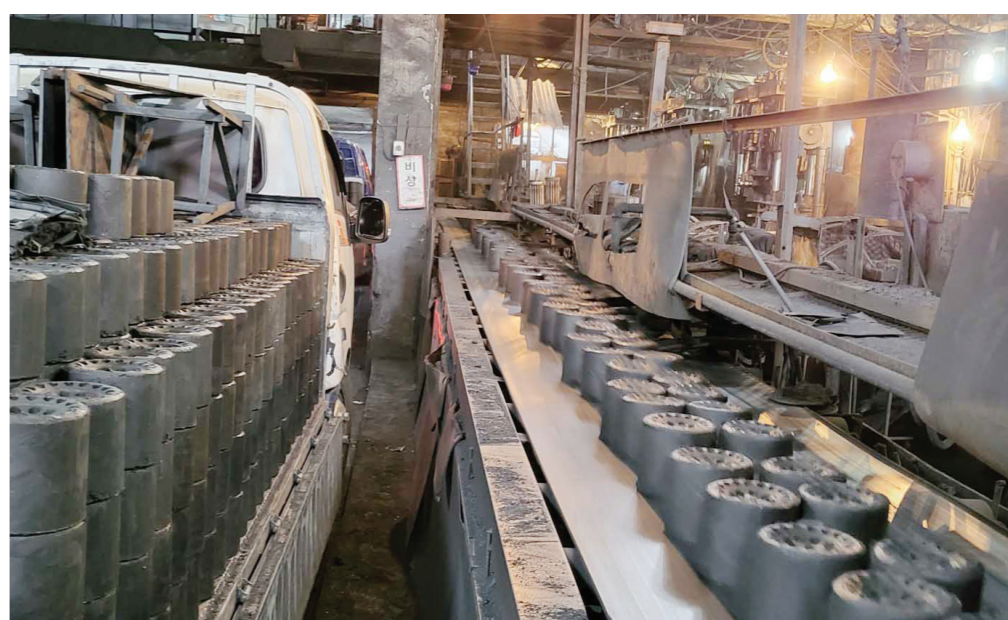
광주시·화순군·대한석탄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연탄공장 2개사 대표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실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산설비가 건재한 ㈜남선의 공장 재가동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선이 지난달 공장 가동을 다시 시작했으며, 매주 3일간 일일 약 5만여장의 연탄을 생산해 광주·전남 연탄 사용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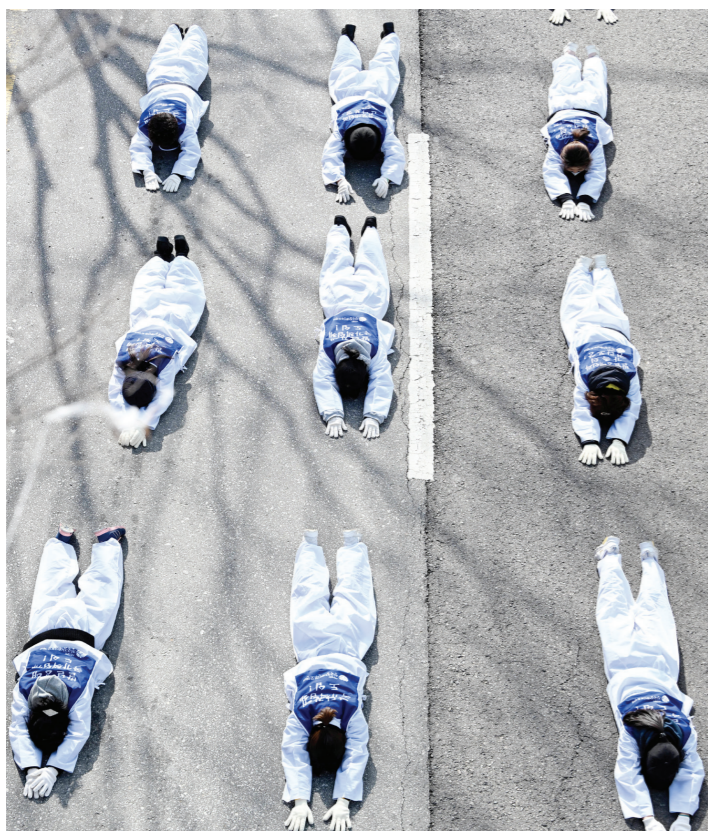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겨울철 연탄 수급 문제가 유관기관과 생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공장의 전남 이전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광주에 소재한 ㈜남선 연탄공장 생산라인이 재가동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장애인 통합교육·주거자립 보장을” 광주 발달장애 부모 오체투지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가 발달장애 자립생활권, 통합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 발달장애 부모·활동가 100여명 1km행진 “부모 없이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촉구”

광주 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통합 교육과 주거 지원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완전한 통합 사회 구축을 위한 전국 순회 오체투지’ 집회를 열고 광주시청까지 약1km 구간에 걸쳐 삼보일배를 했다.

이날 투쟁엔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 지역 장애인 학부모·활동가 등 1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 통합교육, 생활자립, 노동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발달장애 자식을 살해하고 부모가 스스로 숨지는 사회적 타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발달장애인도 자립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차별없는 통합 교육을 받을 권리, 일터에서 노동하며 자기 삶을 꾸려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초등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배제돼 특수학교로 밀려나고 있고, 부모를 잃은 장애인은 주거 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시설에 맡겨진다”며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면기자

北, JSA도 재무장...軍 “상응조치 취할 것”

2018년 10월 이후 5년여만에 총기 소지 우리 군, 비무장 유지...北동향 따라 무장

북한이 지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후 GP 병력 투입 뿐만 아니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병력도 권총으로 재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 북한 병력은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찬 채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 북한이 JSA 병력 무장을 재개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 2018년 9·19합의 제 2조2항을 통해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2018년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JSA 내 모든 화기·탄약 및 초소 근무를 철수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3일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그 일환으로 JSA 병력 역시 재무장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측 동향에 따라 우리

역시 총기를 소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이튿날인 23일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4일부터는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제초소(GP)를 복원하고, 비무장초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다. 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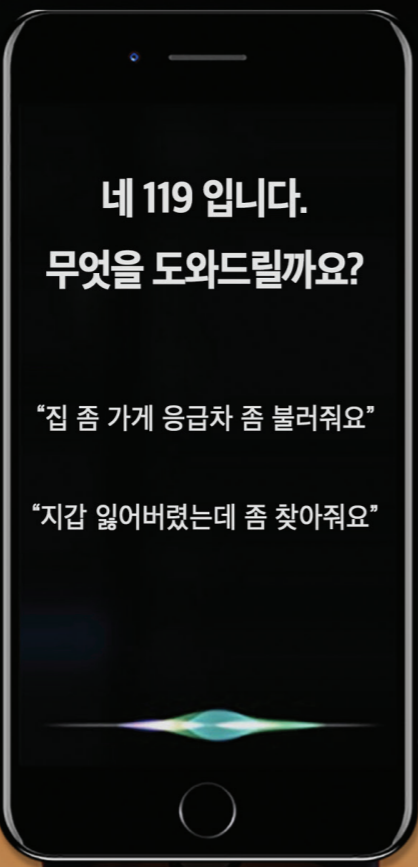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 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목·금·토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